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KOREA BLIND UNION



점자로 말해요

일기
① ④
② ⑤
③ ⑥

천고마비

[나, 다, 마, 바, 자, 카, 타, 파, 하] 약자뒤에 모음이 이어질 때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 [ㄱ, ㅋ, ㆁ, ㆁ] 다음에 약자 'ㅇ'이 올때는 'ㅇ'으로 바뀐다.

I 장애모형에서의 기능모형은 차별일 수 있다

(한국장애인재단 사무총장 서인환)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을 판정하는 기준은 다른 장애유형과는 달리 시각장애인은 기능모형을 따르고 있다.

장애모형에는 의료모형, 기능모형, 사회모형, 정치모형이 있다. 의료모형은 손상부위와 원인 등을 기준으로 장애를 판정하고, 사회모형은 사회적 제약을 장애 기준으로 하며, 기능모형은 신체적 기능의 제한을 기준으로 하고, 정치모형은 권리와 사회 참여도를 기준으로 한다.

시각장애인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그러므로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개선이 되면 장애가 아닌 것이다. 지체장애인이 목발을 사용하면 걸을 수 있다고 하여 장애가 아닌 것이 아니지만, 시각장애인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하므로 기능모형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한쪽 시력만 실명한 경우 6급 시각장애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외국에는 없는 기준으로 사회모형에 속한다.

시각장애인은 같은 시각장애가 되는 원인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전혀 반대의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백내장의 경우를 예로 들면 중앙부위에 손상이 있으면 어두운 곳에서 더 잘 보게 되고, 주변부위에 손상이 있으면 밝은 곳에서 더 잘 보게 된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빨간색을 더 잘 보고, 어떤 이는 녹색을 선호하고, 어떤 사람은 흑백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청색과 흰색의 대비를 좋아한다. 색맹 역시 천차만별이다.

이런 개별적 기능을 표준화하기란 쉽지 않다. 저시력인이라고 하더라도 글씨를 너무 크게 하면 오히려 전체를 볼 수 없어 독서를 하지 못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야간에만 보지 못하며, 어떤 사람은 가까이 다가가면 보지만 조금만 떨어져도 보지 못한다. 이것이 기능모형에서의 표준화된 기준을 만드는 데에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은 보통 사고로 실명을 하게 되면 노동력 상실을 80%로 간주한다. 80%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보험사 등에서는 앞으로 예상되는 소득의 80%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이 사람이 안마사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더 많은 나이에도 직업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40세까지 일한다고 계산한다면 그것은 비현실적이라 할 것이다.

또한 노동력 80%가 상실된다면 20%의 노동력은 살아 있을까? 100만원 월 소득을 가진 사람이失明하면 20만원의 소득을 올린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직장을 잃으면 아예 소득이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맥브라이드식의 손해보상 기준은 엉터리다. 또한 일부 소득이 가능하다고 하여 감액하는 호프만 계산법 역시 엉터리다.

그런데 이미 시력을 상실한 기왕증이 있는 시각장애인이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면, 이미 노동력을 80% 상실한 사람이었기에 보상은 앞으로 예상되는 소득의 20%로 한정된다.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소득을 기준으로 앞으로의 소득을 예견하겠지만, 어린이라든가, 실업자 등으로 아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근로자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20%만을 계산할 것이고, 여기에다가 가해자의 과실을 비율을 적용하여 보상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가해자의 과실이 20%라면 20%에서 다시 20%를 감하여 앞으로의 소득 예상액의 4%만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시각장애인이 일을 하게 되면, 최소한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임금은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연금 등을 받을 것인데, 200만원을 평균소득이라고 하여 40만원만 보상한다면 비현실적인 것이 분명하다. 시각장애인 중 평균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도 얼마든지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능모형에 의한 보상방식은 장애인들을 노동력 상실자로 보고, 완전한 한 인간으로 대하지 못한다. 또한, 장애인의 다양성과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사고로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보상금을 노동력 상실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지만, 이미 시각장애인이 된 기왕증을 가진 사람에게 이미 노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잔존 노동력에 한정해서 보상하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분명하다.

장애를 표준화하거나 수량화하는 것 역시 고정관념이다. 편견과 고정관념이 차별을 만드는 것이다. 결국 가장 무서운 차별은 법원의 판례가 아닌가 한다.

10월 15일, 흰지팡이 날을 소개합니다.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WBU : World Blind Union)에서
전 세계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정한 날이 있습니다.
바로 10월 15일, 흰지팡이 날(the White Cane Day)인데요.
이번 호에서는 흰지팡이 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흰지팡이 날은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정한 날로써, 리처드 후버(Richard Hoover) 박사가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위해 제작한 흰지팡이의 상징적인 의미를 이용해 이름 붙여졌는데요. 흰지팡이 날 선포문에는 '흰지팡이는 동정, 무능의 상징이 아니라 자립과 성취의 상징이다. 전 세계의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과 정부는 이날을 기해 시각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행사와 일반인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계몽을 적극 추진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흰지팡이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을까요?

1900년대는 세계대전으로 시각장애인이 증가하였던 시기였습니다. 이에 벨리포지 군병원(Valley Forge General Hospital)의 안과 의사였던 리처드 후버 박사는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고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는 흰지팡이를 고안하였고, 이 지팡이는 무게 170g, 길이 117cm, 지름 1.27cm로 제작되었습니다.

1931년 캐나다에서 개최된 국제라이온스클럽(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ions Clubs, 국제적사회봉사활동 단체) 대회에서 흰지팡이에 대한 표준화 기준이 마련되었으며, 이후 1980년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10월 15일을 흰지팡이의 날로 공식 지정하여 각국에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2년 도로교통법에서 처음으로 흰지팡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는데요. 현재 도로교통법 11조에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도로를 보행할 때는 흰지팡이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 법 49조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유아가 보호자 없이 걷고 있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고 걷고 있을 때에는 일시 정지한다.

올해 제36회 흰지팡이 날을 맞이하여 전국단위의 기념식이 경상남도 마산 종합운동장에서 열려 약 3,000명의 시각 장애인, 자원봉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 및 흰지팡이 대행진, 노래자랑 등 화합의 한마당이 이어졌고, 각 지역별로도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되었습니다.

10월 한 달 간 전국 각지에서 다양하게 열릴 흰지팡이 날 기념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시각장애인들이 흰지팡이를 지지 대로 재활과 자립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더불어 사는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진심을 다해 노래하는 성악가, 카운터테너 문지훈씨

카운터테너,
남성이지만 여성의 음역을 소화할 수 있는 성악가를
말하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카운터테너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희망을 주는 인물,
26살의 카운터테너 문지훈 씨를 만났습니다.

문지훈 씨는 20세 이후에 시각장애를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처음 시각장애 판정을 받았을 때 어땠나요?

20세 때 시력이 조금씩 안 좋아지는 걸 느꼈어요. 그 때는 그저
대수롭지 않게 '눈이 좀 나빠졌나?'라고만 생각했죠. 그러다가
군대에 가기 위해 신체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시력 측정이
어렵다면서 큰 병원에 가보라고 권유하더군요. 그 때 처음
시각장애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많이 놀랐죠. 부모님도 많이
놀라셨고요. 이 날 이후 제 인생이 또 한 번 바뀌는 계기가
되었어요.

성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사실 어릴 때 운동을 했었어요. 축구선수가 되고 싶었거든요.
남들보다 뛰쳐나간다고 생각해서 밤을 새면서 축구 연습을 했어요.
그러다 결국 꼬리뼈에 문제가 생겨 운동을 할 수 없게 되었
습니다. 운동 말고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학교도 1년 동안 쉬었고요. 음악을 시작하게 된 건
중학교 때 음악 선생님의 영향이 컸어요. 합창반의 여자
소프라노 파트를 따라하는 모습을 보고 음악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해주셨거든요.

그렇군요. 카운터테너는 테너, 바리톤 등 다른 남자 성악 파트에 비해 생소한데요. 카운터테너의 매력을 자랑하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카운터테너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외국에서는 굉장히 사랑받는 성악 파트 중 하나입니다. 남자로서 여성의 음역을 소화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카운터테너의 수가 적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카운터테너는 여성 소프라노 음역까지 소화하기로 알려져 있는데, 남성으로서 훈련 시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소리가 마음처럼 나오지 않을 때가 가장 힘들죠.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자신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거든요. 또 정통 클래식 자체가 외국의 음악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카운터테너의 길을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힘들 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도 어려움으로 작용하죠.

문지훈 씨는 카운터테너로서 활동하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합창을 하신 경력도 갖고 계신데요. 합창은 솔로로 음악을 하실 때와 또 다를 것 같아요. 문지훈 씨가 생각하는 합창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합창을 하면서 단원들과 하나가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고요. 특히 이번에 광복 70주년 기념행사 ‘나는 대한민국’ 김연아 합창단에서 활동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서로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잘 맞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합창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하나로 정해 지다보니 이런 고민들은 제 기우였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때 느꼈어요. 합창은 여러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앞으로 문지훈 씨와 같이 성악을 하고자 하는 꿈나무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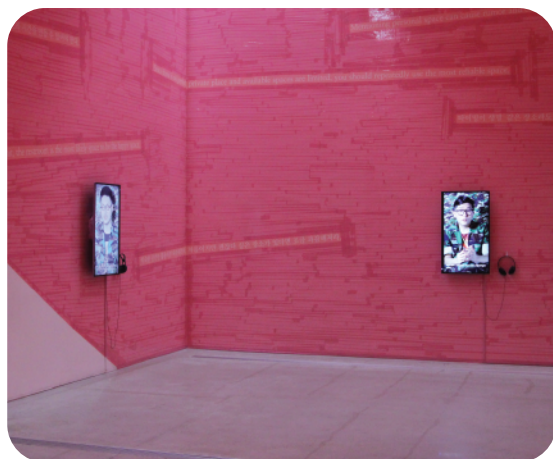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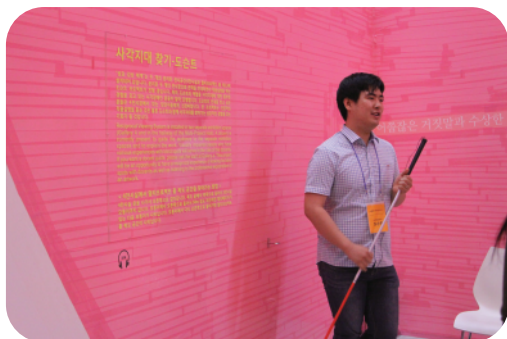
성악은 특히 내 소리, 내 안의 울림을 들을 수 있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때마다 좌절하기 보다는 실패를 통해 얻는 것이 내 것이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않고 내 무대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기 위해 노력하다보면 언젠가 좋은 성악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각장애인 도슨트가 들려주는 현대 미술 이야기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오인환 작가의 '사각지대 찾기'를
소개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과 SBS문화재단은 한국현대미술의 가능성과 비전, 그리고 새로운 대안을 찾고자 매년 [올해의 작가상]을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올해의 작가상] 후보는 김기라(1974), 나현(1970), 오인환(1965), 하태범(1974)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4명의 후보 중 오인환 작가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오인환 작가의 작품은 '사각지대 찾기'로 사전적 의미의 사각지대를 사회 문화적 맥락으로 확장하여 개인들의 사각지대 찾기의 집합을 통해 지배적인 문화에서 배제된 다양한 문화가 출몰하는 창의적인 영역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각지대 찾기'를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주말에 방문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말에는 특별히 작품에 함께 참여한 시각장애인 도슨트의 설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핑크빛 벽면과 벽면에 붙어있는 텍스트, 그리고 CCTV와 화면까지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하나의 작품이 되는 감상법을 시각장애인 도슨트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시각장애인 도슨트와 미술관 내부를 이동하며 비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의 안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이 시각장애인에게 안내를 받아보는 체험도 하실 수 있습니다.

'사각지대'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올해의 작가상 오인환의 '사각지대 찾기'는 2015년 11월 1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할머니의 봄

| 정은주(시각1급_광주광역시 북구)

매년 어김없이 봄이 찾아오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리움이 샘솟는다. 초등학교 4학년의 따스한 어느 봄날 아침이었다. 외숙모에게 걸려온 다급한 전화를 받은 엄마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오열하시는 것이었다. 췌장암으로 고생하시던 외할머니께서 하늘나라에 가셨다는 비보였던 것이다. 향년 78세의 결코 길지도 짧지도 않은 삶을 살아내시고 힘겹게 숨을 거두셨다.

할머니는 언니가 태어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첫째 외손녀를 위해 아끼자기한 모빌도 사서 달아 주시고 개월 수에 비해 한참 빠른 장난감들을 진열해 놓으시며 남다른 열성으로 보살펴 주셨다. 그러나 100일이 지나도 모빌의 움직임에 시선을 주지도 않고 가족들의 눈 맞춤에도 반응하지 않는 것에 설마 하는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다. 불길한 예감은 여지없이 들어맞았다. 선천성 녹내장 판정을 받게 된 것이다. 가족들의 근심과 슬픔은 꽤 오랜 시간 지속되었던 것 같다. 살아오면서 시각장애인을 전혀 접해본 일이 없었기에 어떻게 키워야 할 지 막막하고 두려웠을 게다. 그러나 우리 가족의 시련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동생을 원하는 첫째 아이를 위해 몇 번을 망설이다 5년 만에 얻은 둘째인 나 역시 선천성 시각장애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나와 언니는 그런 사정일랑 모르고 여느 아이들처럼 천진난만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일을 나가셨던 엄마를 대신해 우리는 주로 외할머니가 돌봐주셨다. 시각적인 자극이 많이 주어져야 할 시기였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필요치 않았다. 그럼에도 할머니의 아픈 바람이었을까. 색색의 크레파스들과 도화지, 알록달록한 그림책, 퍼즐 장난감들이 집을 가득 메우게 되었다. 우리는 도화지에 우리조차 알 수 없는 정체 모를 그림들을 그렸다. 색감을 알지 못했지만 나는 빨강이라는 말의 어감이 왠지 마음에 들어 어른들에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은 빨강이니 신발이며 가방이며 물고기며 다 빨강으로 사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어느

순간 할머니도 우리에게 그러한 장난감들이 부질없다는 것을 아셨는지 엄마에게 넌지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보듬고 만지고 놀 수 있는 인형 같은 걸로 많이 사줘라." 그 때부터 나는 각종 인형들과 함께 엄마놀이를 하며 재미있는 유년을 보냈다. 그렇게 서서히 할머니의 이루어질 수 없는 기대와 한 가닥 희망이 아프게 사라져 갔다.

늘 곁에 머물러 계실 줄만 알았던 할머니가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다는 소식이 들려온 건 내가 열 살 무렵이었다. 암이라는 병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람의 몸과 마음을 할퀴는 병인지 잘 알지 못했던 나는 할머니가 곧 하늘나라에 가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막연히 슬프기만 했던 것 같다. 할머니는 점점 앙상하게 말라가고 계신다고 했다. 진행이 생각보다 빨랐던 모양이었다. 나는 병실에 전화를 걸어 할머니에게 오래오래 사시라고 우리를 대학교 가고 시집가는 것까지 보고 가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할머니는 "그려. 그려." 하시며 울먹이었다. 7남매의 자식과 그들의 술한 손주들 중에서 할머니에게는 우리와 엄마가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을 것이었다. 며칠 뒤 더 이상의 치료가 무의미하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퇴원을 하셨다. 할머니는 낮에도 밤에도 코를 골며 계속 주무시기만 했다. 할머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혼수상태가 지속되어 그럴 수가 없었다. 그렇게 허망하게 할머니는 떠나가셨다. 내가 태어나 경험한 최초의 아픈 이별이었다.

하늘에 가신 지 벌써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이따금씩 외할머니를 생각할 때면 마음 한 구석이 찢해진다.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존재가 바로 할머니이기 때문일 것이다.

부디 할머니가 계시는 그 곳은 떠나시던 그 날처럼 언제나 포근한 봄날만 가득하기를 소망해 본다.



강원도 양양에서 전국시각장애인 탠덤사이클대회 실시!

지난 9월 3일(목요일)부터 9월 4일(금요일)까지 강원도 양양군 양양사이클경기장에서 제11회 전국시각장애인탠덤사이클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탠덤사이클 경기는 장애인과 파일럿(비장애인)이 2인용 자전거에 동승하게 되는데요. 앞좌석에는 파일럿, 뒷좌석에는 시각장애인이 탄 채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원도지부와 강원시각장애인스포츠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대회는 전국의 25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스프린트와 독주 남녀종목에서 승부를 겨루었습니다. 남자부문 우승은 부산스포츠공단의 김종규 씨, 여자부문 우승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원도지부 원주지회의 김은순 씨가 차지했으며,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동행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월드리포트

이스라엘, 글자 읽어주는 안경 발명!

이스라엘의 한 스타트업 기업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경을 개발했습니다. 이 안경은 안경을 착용한 사용자가 손으로 특정 대상을 가리키면 안경다리의 카메라가 이를 인식해 관련 정보를 음성으로 들려주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는데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가 오는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150번 버스가 오고 있습니다.”라고 안내 하거나 손으로 신문이나 메뉴판을 가리키면 해당 문장과 글자를 인식해 읽어주기도 합니다. 또한 쇼핑 시 제품의 브랜드와 같은 상세 정보를 알려주기도 하며, 계산 시 사용자가 꺼낸 것이 어떤 신용카드인지 얼마 짜리 지폐인지도 식별 가능합니다.

미국의 기술 투자기업 인텔캐피탈은 이 안경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 1500만 달러를 투자할 것을 약속했다고 하니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 됩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NEWS



시·청각장애인 모바일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열려

지난 9월 1일 여의도 이룸센터 지하 1층 이룸홀에서는 '시·청각장애인 모바일 정보접근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본 토론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민병주 국회의원실 공동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이경숙 상임위원과 민병주 의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병돈 회장의 축사와 함께 진행되었는데요.

토론회는 약 3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이루어졌 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장애인 모바일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방안'이었으며, 두 번째 주제는 '장애인 방송접근권 문제와 해소방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토론이 끝난 후 방청석 질의·답변 시간에는 시각장애인이 현재 겪고 있는 방송·모바일 접근 관련 개선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각 분야별 참석자와 토론자들은 시·청각장애인의 모바일, 방송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면서도 기업의 비즈니스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시각장애인 인식개선 서포터즈 '빛길' 발대식

지난 9월 21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는 시각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이병돈) 대학생 서포터즈인 '빛길(빛을 밝혀 세상을 이끄는 길)'의 발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총 30명으로 구성된 서포터즈는 장애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온·오프라인에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특히 온라인 매체 중에서도 블로그를 이용해 시각장애인과 밀접한 정보들을 다루어 파급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교 캠퍼스, 지하철 등 유동 인구 밀집 지역에서 서포터즈가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캠페인 활동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빛길' 1기는 보건복지부의 후원을 받아 약 3개월 동안 활동하게 되며 추후 활동 발표회를 통해 활동 우수자에 대해서는 포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빛길' 1기의 힘찬 출발을 응원합니다.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 등에서 쇼핑을 할 때

시각장애인들에게도 쇼핑은 단순히 생필품 구입에서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기본전환과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일상 활동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요즘은 가격파괴와 심야영업시간 등으로 쇼핑의 다양성을 꾀하는 대형할인점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대형할인점은 물건이 다양하고 가격이 싼 반면에 구매를 도와주는 점원이 별도로 없어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혼자서 쇼핑하기가 힘듭니다. 만약 혼자 쇼핑을 하는 시각장애인을 만난다면 시각장애인이 구입하려는 품목에 대해 간략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동일 품목에 여러 가지를 비교할 수 있을 때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시각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 안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단체인원을 대상으로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에서는 시각장애에 대한 교육 및 시각장애 체험을 진행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단체가 계신 곳으로 찾아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자원봉사센터, 도서관 등에서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을 참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 상	초·중·고등학교 및 사회인
내 용	시각장애이해 및 에티켓교육, 한글점자이해, 시각장애체험, 여가·문화체험 등
진행장소	신청기관을 방문하여 진행
체험시간	3시간 이내(봉사활동 확인서 발급가능)
상담·접수	02-950-0133 박승만

| 후원안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전국 50만 시각장애인의 복리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각장애인 단체입니다. 후원자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중히 쓰일 것이며 후원자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로번호	7608162	
계좌번호	(예금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국민은행 835-02-0114-768, 497801-96-200273	우리은행 428-04-103943
	하나은행 757-810001-08405	외환은행 170-22-00710-6



손으로 보는 세상 2015년 10월 183호

발행일 2015년 10월 15일 발행처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이병돈 편집 김민지
주소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22(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601호 T 02.6925.1137 F 02.6925.1117
홈페이지 www.kbuwel.or.kr 한글도메인 시각장애인.kr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kr
디자인 한국엠디 02.867.1921 캘리 모노D